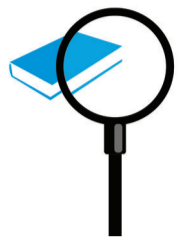


# 오늘의 시대 주목해야 할 세계 트렌드 12가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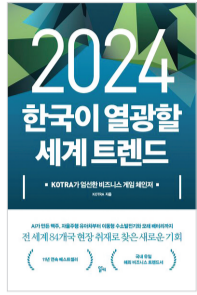
KOTRA 지음

오늘의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무엇일까.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변화무쌍'은 어쩌면 시시각각 변하는 오늘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말이 아닐까 싶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 등 지구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AI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람을 대신하는 스마트 기술은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작금의 시대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는 전 세계 84개국 KOTRA 무역관이 260여 개의 사례를 분석해 12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책이다. KOTRA는 1962년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 무역 진흥을 위해 1962년 설립됐으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온리유 비즈니스=오직 '나'만을 위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는다. 1인시대 생활양식에 최적화된 상품을 비롯해 일대일 팬텀 비즈니스와 연관된 제품들도 있다. 개인 맞춤형 정제 영양제, 움직이는 가

▲AI 경영자=MBA 졸업생들과 AI는 경쟁중. 글로벌 기업들은 AI에게 경영 컨설팅을 받는가 하면 점포 관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형 에너지=코로나 팬데믹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와 맞물려 미래형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뜻밖의 재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신기술이 화제다. 신개념 산업용 배터리로 가능성 주목받은 모래 배터리 등이 그 예다.

▲셀프 셰이프=내 몸은 내가 챙기고, 안전 또한 내가 챙긴다. 오늘의 인류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 등에 기대지 않고 건강을 챙기려는 니즈에 맞는 제품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음식으로 음식을 포장하는 친환경 시대를 열었다. 스웨덴의 감자전분으로 만든 주스 병. <출처 콘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한다.

▲변화하는 여행=온전히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싶은 여행이 뜨고 있다. 자연 속으로 떠나는 오프그리드 여행이 주목받는 이유다. 사생활 보호와 숙소 관리로 한계에 직면했던 공유숙박이 새로운 기술로 고민들을 해결해가고 있다.

▲실버싱글=1인시대는 실버싱글을 만들었다.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버싱글을 위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펠테크, 다기능 실내 모니터링 및 정보 시스템 등이 눈에 띈다.

▲에코테크=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이상기후, 환경오염, 고령화로 삼중고를 맞았다. 식량 안보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시대, 곡물을 관리하고 소를 돌보는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농축산업의 돌파구가 되는 기술들을 살펴본다.

▲에코소비=이제 가성비는 더 이상 충분조건이 아니다. 오늘날 새로운 세대는 소비를 매개로 가치관을 증명하고 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가치 있는 변화 '테라사이클',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릴 미래의 고기 '3D 프린팅 대체육' 등이 주목 받는다.

▲작은소비=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즐길 건 즐기되 착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로크홀 도서관으로 바뀐 네덜란드의 철도시설. <출처 ArchDaily>

하게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 절약이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모토다. 절약형으로 재해석된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뉴모빌리티=하늘을 달리는 자동차는 상상 속 이야기는 아니다. 즉 항공택시와 항공버스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동형 수소발전기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등 뉴모빌리티 기술의 현 주소를 만난다.

▲공간의 재정의=사람들은 경직된 근무방식에

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자유롭게 일하길 원하는 니즈에 따라 사무실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구도심 낡은 건물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로보틱스=로봇은 일손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간과 감정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로봇 교사는 자폐 아동 대상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점차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로봇을 만난다.

<알키>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시콜콜한 조선부동산실록

박영서 지음

시대를 초월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부국강병의 핵심은 국민안이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았는데 어느 시대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이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은 많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많은 국가의 멸망의 기저에는 부동산 문제가 자리했다. 권력자들의 토지 집착은 무수한 피해를 낳았고 특히 고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 건국 세력이 새 왕조를 열며 토지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조선의 부동산 역사를 토대로 오늘날 부동산 개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시시콜콜한 조선부동산실록'은 흥미로운 책이다.

책은 조선이 토지 개혁 과정 중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담고 있다. '시시콜콜한 역사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박영서 작가가 저자다.

책은 크게 두 개의 주제, 조선의 토지 제도와 주택 거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의 신진사대부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다. 그러나 개국공신에 대한 보상적 특권으로 사유지를 제공했고 '예외적 특권'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빠뜨렸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심각한 주택난이 있었다. 작은 집 한 채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오늘의 '부동산 공화국'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에 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들녘>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처음 식물

아피스토(신주현) 지음

"정글이나 다름없는 사무실에 처음 오는 사람은 식물 앞에서 멈춰서거나 감탄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내 긴장은 풀어집니다. 식물이 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식물에게는 우리를 무장 해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식물이 놓이면 그 자리에 언제나 이야기가 생깁니다. 책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식물 유튜버 아피스토(신주현)가 쓴 '처음 식물'은 어쩌다 사무실 절반을 식물로 채워버린 저자가 식물을 키우면서 겪은 경험과 식물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친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수초와 물고기, 정글플랜트와 열대관엽식물을 사랑하는 아피스토는 책의 삽화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출판편집자이기도 하다.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식물을 얼마나 애정하는지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식물을 처음 들이는 날 의식처럼 사진을 찍었다가 식물이 아플 때 들여다보면서 초심을 잡는다면, 죽어나간 수많은 식물의 이름표를 모으다가 어느 날 죄책감이 들어 식물이름표 위령비를 만들어 위로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저자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식물과 사람이 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이란 결국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년간 제주 일대를 헤맨 끝에 집마당에 100년 된 팽나무를 키우게 된 남자, 재개발예정단지에서 유기식물을 구조하는 작가 등 지난 1년 동안 만난 10명의 식물집사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사무실 절반을 가득 채운 식물들의 사진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책 중간중간에 아피스토의 사랑스러운 캐릭터 '구근이'가 등장해 식물집사의 마음을 대변해준다.

<미디어샘>1만7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오물렛

임유영 지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붙잡아두어도 될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보이지 않게 두어도 될까./ 따뜻한 거 먹이고 싶다."

차가운 새벽, 우리들의 알몸에 따뜻하고 섧노란 '오물렛'을 이불처럼 덮어주는 시. 인간의 좁은 식도에 '따뜻한 거' 흘려보내며, 폭력적 세계에 비폭력적으로 항거하는 시.

최근 임유영이 펴낸 첫 시집 '오물렛'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등단 당시부터 일상적인 언어와 평범성 속에 숨어있는 안전한 시선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 작품집 전면에도 독특한 리듬과 일상성에 친착하면서 타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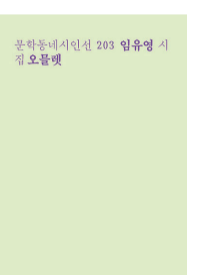
"이 돌레를 따라 걷고 있다 돌레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거듭하고 까치의 것이었다가 까마귀의 것이었다가 비둘기의 것이지만 반복한다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은 없다" ('구역' 전문) 약자를 위무하는 시편들이 많지만 이번 시집은 세계의 단면을 날카롭게 해부하려는 시도처럼 다가온다. 위 시 '구역'은 존재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배 피우면서 휴식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다양한 존재들이 '구역'을 두고 경합하면서 죽음(까마귀), 비둘기(평화) 따위를 상징하지만, 막상 '담배' 피울 일상적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은유하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이번 시집은 담담한 묘사도 놓치지 않았다. 새끼 곰을 소제 삼는 '단단', 개에게 손을 잘못 물린 이야기를 그린 '너의 개도 너를 좋아할까-D에게' 등은 일상성, 타자성, 치유와 연대, 여성성을 오간다. 다양한 주제들은 임유영의 넓은 시적 스펙트럼을 짐작케 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